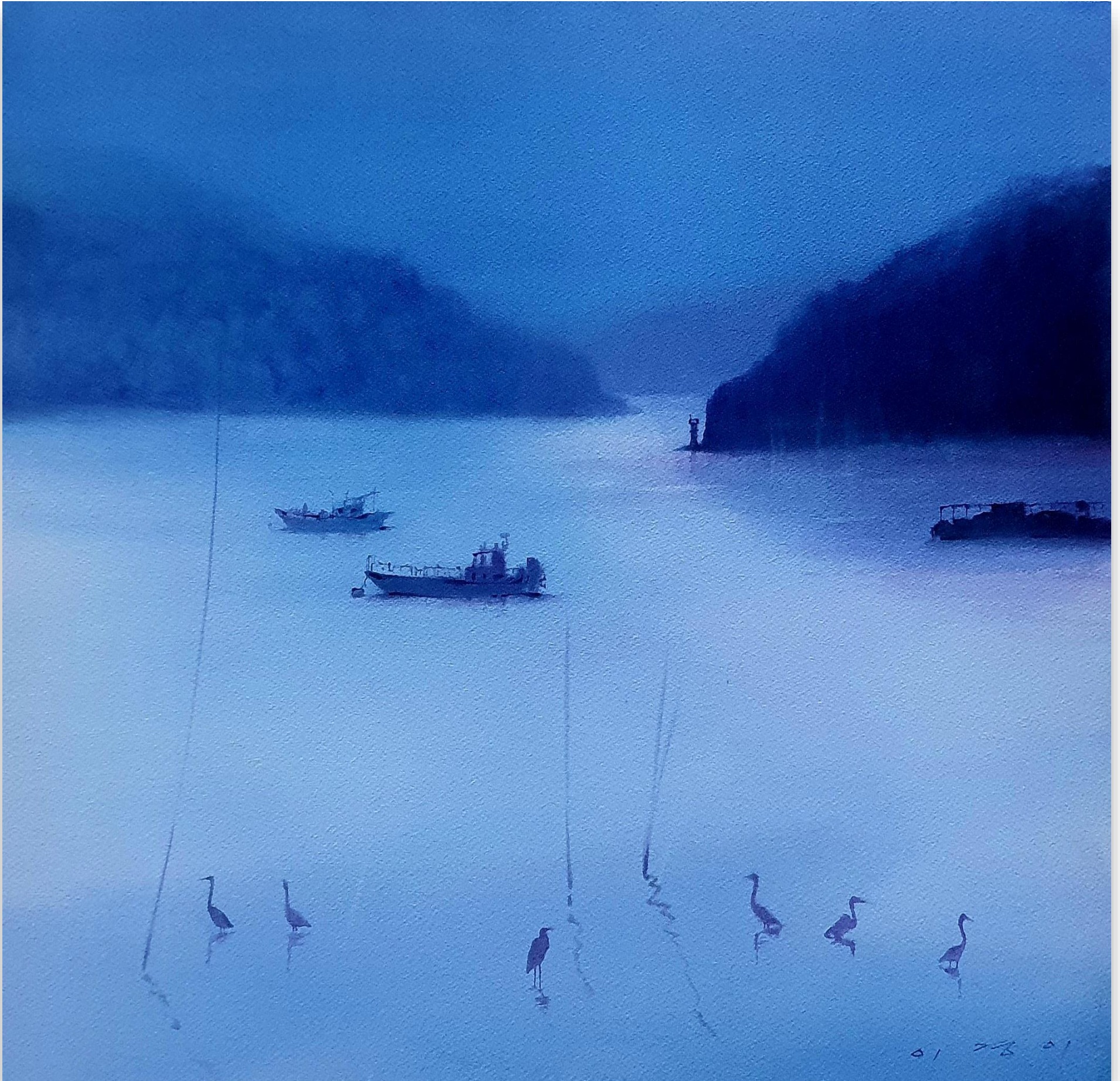


2025 용인시 미술작품 임차전시 (2차) 공모사업 선정작품전

전시장소 관내 공공기관 및 문화복지시설
전시기간 2025. 7. 14. ~ 12. 31.



바다의 교향곡 이 경 이

50.8 X 60.1cm
oil on canvas (서양화)

고향의 아침 바다... 섬과 섬 사이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등대를 길잡이 삼아 새벽부터
조업하러 나간 배들과 먹이를 찾아 내려선 두루미가 어우러진 풍경은 교향곡처럼 평온함과
안식을 가져다준다.



가시선_형상 서연수

22 X 23 X 8cm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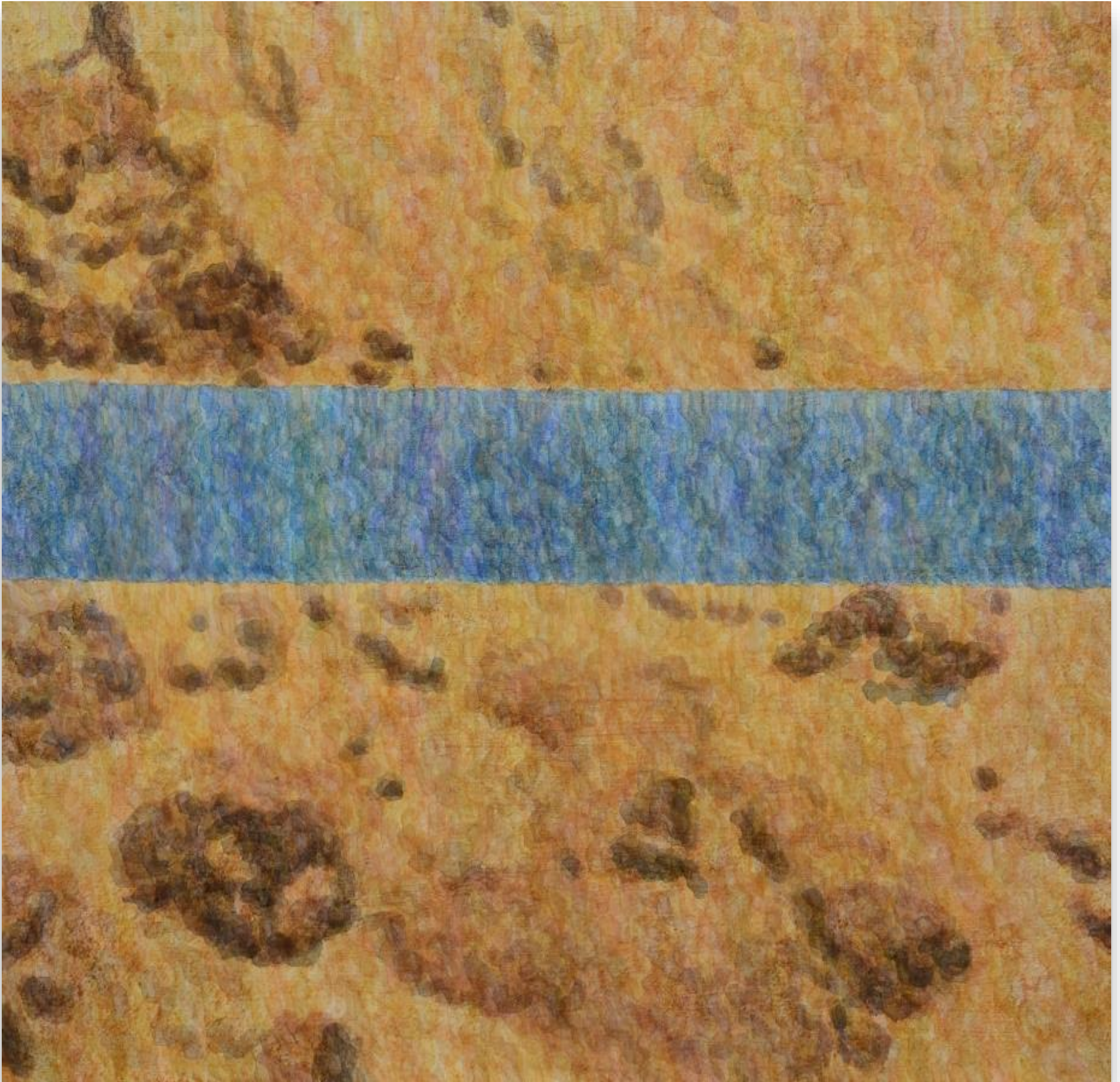
다양한 시각적 요소가 개인적인 해석을 유도하며 보는 이의 기억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즐거움과 동적 에너지를 전달한다.



손끝에 닿은 상상 신 희 진

62 X 42cm
분채, 순지 (동양화)

디지털 화면 속 잉어와 현실의 고양이가 교감하려는 모습은, 현실과 가상이 맞닿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창조적 순간을 상징합니다. 배경에 배치된 책가도의 전통적 요소들은 지식과 상상력의 원천을 뜻합니다.



Part 9

박 소 현

60.6 X 72.7cm

acrylic on canvas (서양화)

모든 예술이 하나의 꽃을 피우려면 작가의 모든 혼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장인정신을 사진으로 표현하기에는 도공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쏟아붓는 장면이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여 촬영하게 되었다.



담장 넘어 여행 김 정 숙

41 X 31cm
수채 (서양화)

마당이라는 작은 세상만 보고 자란 능소화는 그 곳이 전부인줄 알지만
벽 하나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매화꽃 필 무렵 이 민 애

70 X 56cm
acrylic on canvas (서양화)

전통적으로 좋은 시공간을 전달하는 청각적 매개체였다.
작품은 종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다.



Color Quilting 71203202

엘리정

60.6 X 72.7cm

acrylic collage on canvas (서양화)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소재로 한 추상회화로 제빵사인 작가의 남동생에 영감을 받아 제빵용 짚주머니와 알뜰주걱을 사용하는 작가만의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노동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쥐어짠다’는 표현을 시각화한 시도이다.



창 조 박 승 호

20 X 30inch
염료승화 및 코팅 (사진)

이 사진은 드론사진으로 아이슬란드 빙하 물줄기다.

자연환경은 빙하기에서 시작되었고, 동식물과 인간의 출현으로 빙하는 녹기 시작하고
물줄기는 생명의 젖줄이되어 인간세상을 창조하였다.



텃밭 귀퉁이화단 지 성 실

60.6 X 60.6cm
oil on canvas (서양화)

텃밭 한 귀퉁이 화단의 정겨운 꽃들과 그 위로 쏟아지는 햇빛을 표현하고 싶었다.



꿈꾸는 초록 식물 박지연

56 X 63cm
mixed media on canvas (서양화)

초록 식물은 시간을 견디고 자라난다. 우리가 삶을 견뎌내듯이.

초록 식물은 햇빛을 받으며, 바다의 조개는 연두빛 나비가 되어 한 낮의 여름을 꿈꾸며 노래한다.

우리의 삶이 고운 연두 빛이 되길 소망하며.



가을이 오는 숲 홍진희

61 X 42cm
cotton thread on canvas (서양화)

고창 선운사 꽃무릇이 절정인 숲을 캔버스 바탕에 실로 표현한 작품으로 저는 물감 대신 실(면사)로 작업하며 새로운 회화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구진아

60.6 X 72.7cm
acrylic on canvas (서양화)

유한하고 고독하지만 저마다의 삶의 몫을 마지막까지 묵묵히 채워가는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줍니다. 어둠 속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달의 모습을 통해 이런 삶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평안 김수경

53 X 73cm
acrylic on canvas (서양화)

자연은 언제나 삶의 평안을 안겨준다. 그런 자연을 소재로 그림의 구성요소인 선과 면,색을 사용하여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편안한 시공간을 담아 표현해 보았다,



연 연하지 않는 연 김 정 미

41 X 41cm
기타 (칠보작품)

금,은,동의 유리재질에 유약을 올려 800℃ 가마에서 여러 번 소성한 칠보 작품이다.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연을 소재로 작업을 해왔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다.



여름을 빛는 아이들 김복순

60 X 72cm
oil on canvas (서양화)

‘창조’란 위대한 예술가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다. 아이들은 ‘발견’하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작고 순수한 마음이 자연과 만나 매일 태어나고, ‘창조’는 아이들의 등 뒤에서 뜨거운 햇살과 흙냄새와 바람속에서 피어난다.



김량장 조미연

72.7 X 60.6cm
mixed media on canvas (서양화)

김량장동을 걸으며 땅바닥과 벽, 하늘 풍경등을 사진에 담았다.

그 사진들로 다시 김량장동의 지도를 그려본다.

우리나라는 어느 도시나 동네, 혹은 마을을 가도 중심에는 틀림없이 천이 흐르고
그 모든 둘레에는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풍경이 늘 정겹다.



부재의 시각화 V 김 효 진

50.0 X 72.7cm
mixed media on canvas (서양화)

비가시적 시간성을 ‘연대기적 거북’이라는 오브제로 시각화한 작업이다.
거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상징으로, 기존 작업과 개념적 연속성을 지닌다.
푸른빛은 시간의 비물질성과 잔존성을 드러내는 시각적 장치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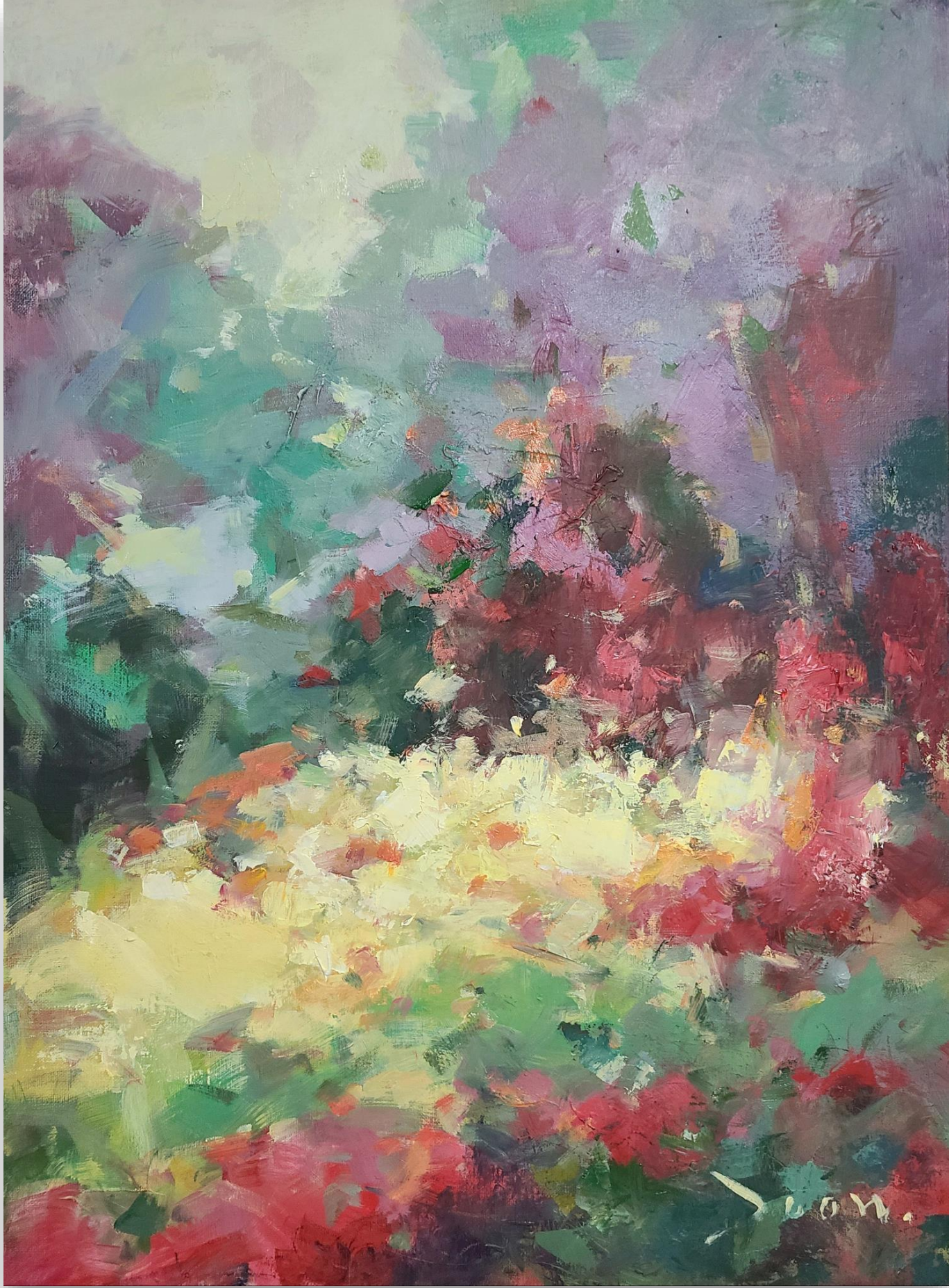


狐蝶夢(호접몽) 정 성 원

72.7 X 60.6cm
acrylic on canvas (서양화)

책속에 펼쳐진 상상의 세계가 현실의 자연과 나비로 연결된다.

자연 속 나비와 어울려 즐기는 여우의 모습을 통해 어느덧 상상은 현실이 된다.



6월의 향연 II 김 현 순

72.7 X 53cm
oil on canvas

6월의 꽃들과 나무숲이 빛과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표현



As Soon As It Gets(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홍정아

66.6 X 53.3cm
mixed media on canvas (동양화)

소녀를 통해 감상자는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풍경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대비를
딤티크(두 폭 그림)표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즉, 동일한 인물과 배경을 두 가지 다른
시간대로 감상하게 된다.



nature concert

김 성 지

72.7 X 60.6cm

acrylic on canvas (서양화)

자연의 변화는 패턴처럼 흘러가지만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들을 포착하여
그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새로움을 찾게하는 작품입니다.



가을을 닮은 꽃 정영진

65.1 X 50.0cm
oil on canvas (서양화)

주변에 보이는 소소한 풍경들을 정감 있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아름답게 표현하려 하였다.
뜨거운 햇살과 흙냄새와 바람속에서 피어난다.



새로운 세상 조미연

58 X 58cm
순지.분채.봉채 (민화)

하늘과 땅, 근원적인 우주 창조적인 의미를 가진 십이지신중 외유내강을 상징하는 토끼와 삶의 창조적인 방향과 인간의 소망을 담은 전통보자기를 같이 그려 인간의 탄생과 장수,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그림이다.



나랑 같이 놀자 김 정 애

72.7 X 60.6cm
acrylic on canvas (서양화)

소외되는 이없이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토끼와 거위를 통해
그려 보았습니다.